

“악플 처벌 강화” “덧글 실명제” 국민청원 등장

스타들 악플러에 비난의 목소리 연예계 행사 스톱...추모 분위기 경찰, 유족 동의 언어 부검 진행



설리

걸그룹 에프엑스 출신 연기자 설리(최진리·25)는 생전 악플과 악성 루머에 시달리며 공황장애와 대인기피증, 극심한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도 넘은 악플이 또다시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동료 연예인들에게도 무차별적인 비난이 쏟아져 악플의 심각한 피해에 대한 지적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15일 일부 누리꾼은 설리의 생전 ‘유일한’ 대중적 소통 수단인 SNS에

차마 글로 옮길 수 없는 악성 덧글을 쏟아냈다. 보다 못한 설리의 팬들은 이들의 계정에 비난을 퍼부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또 다른 악플을 확대 재생산할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악플 금지” 국민청원 등장

설리의 아픔을 계기로 악성 덧글의 행태를 새삼 비판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 자신들 역시 악플의 공격에 시달려온 배우 신현준, 공효진, 홍석천, 방민아, 박규리 등은 이날 각자의 SNS를 통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악플러, 비겁하고 얼굴 없는 살인자” “조금 더 모두에게 관대한 세상이 되자” “고인을 욕되게 하는 악플러들은 인간인가” “얼굴이 안 보인다고 아무 생각 없이 쏟아내는 글 한 줄에 사람이 죽는다” 등 글로 악플러를 비판했다.

대중들의 비판 여론도 확산하고 있다. 15일 “악플 금지 및 악플러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의견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랐다. “인터넷 실명제를 부활시

키자”는 제안도 나왔다.

악플로 인한 고통에 비해 가해에 대한 처벌이 약한 게 아니냐는 시선과 연관 깊다. 악성 루머 생산 및 유포 등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최대 7년 이하 또는 5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처벌 수위가 낮아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송해교, 아이유, 태연, 설현 등 많은 연예인들이 악플러를 적발해 고소했지만 대부분 100만 원 안팎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을 뿐이다.

이에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악플을 법제로만 제재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표현의 자유를 막는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며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비판하는 온라인 문화 정착이 더욱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마음으로 애도”...연예계 일정 스톱

비보 이후 15일에도 연예계에는 애도의 마음이 이어졌다. 설리의 소속사 SM 엔터테인먼트는 유족의 뜻에 따라 고인

의 빈소 및 발인 등 모든 장례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별도의 팬 추모 공간을 마련해 16일 낮 12시부터 밤 9시까지 조문할 수 있도록 했다.

슈퍼주니어와 멤버 동해, 소녀시대 태연 등 SM엔터테인먼트 가수들은 뮤직비디오 공개, 팬미팅, 새 앨범 발표 등 예정된 행사와 일정을 모두 연기했다. 밴드 엔플라잉과 연기자 김유정 등도 컴백 쇼케이스와 촬영일정을 취소했다. 이달 컴백을 앞둔 뉴이스트, 몬스타엑스, 데이식스 등도 새 앨범 홍보 일정을 미루고 추모 분위기에 동참했다. 케이블채널 엠넷 ‘썸바디’, 올리브 ‘차진로드’, 넷플릭스 ‘박나라의 농염주의보’, tvN 드라마 ‘유령을 잡아라’ 등 방송사도 제작발표회를 취소하거나 일정을 뒤로 미뤘다.

한편 15일 경찰은 설리의 사망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유족의 동의를 얻어 그의 시신을 부검하기로 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백술미 기자 bsm@donga.com

안방 온 웹드라마 1020세대 잡아라

MBC 내달 1월부터 ‘연애미수’ 방영 새벽 시간대 매회 25분 과감한 실험

웹드라마가 안방극장을 넘보고 있다. 방송사들이 온라인상 ‘역대 조회수’를 기록한 인기 웹드라마를 연이어 편성하고 있다. 10대 등 젊은 시청자를 유입하기 위한 방편이다.

MBC는 웹드라마 ‘연애미수’를 11월 1일부터 매주 금요일 밤 12시 50분에 방송한다. 동영상 재생 플랫폼인 V라이브와 네이버TV가 10월 중 공개한 뒤다. ‘연애미수’는 2017년 8월 공개된 1억 조회수를 돌파한 웹드라마 ‘전지적 짝사랑 시점’의 스펀 오프(원 작품의 캐릭터와 설정에 새 이야기기를 더한 작품) 격이다. 여희현, 양해지 등을 ‘10대들의 스타’로 만든 원작의 인기가 방송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앞서 작년 7월 ‘에이틴’과 올해 7월 ‘인서울-내가 독립하는 유일한 방법’도 각각 케이블채널 엠넷과 종합편성채널 JTBC가 방송했다. ‘에이틴’ 시리즈는 3억 누적 조회수로, ‘인서울’은 고3 수험생과 엄마의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담아내 10대들의 공감을 모았다.

모두 방송가가 웹드라마의 인기에 주목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또 최근 중장년층으로 ‘리모콘 파워’가 옮겨가면서 다소 멀어진 젊은 시청자와 거리감을 좁히려는 노력이다. 온라인상 두터운 팬덤을 안방극장으로 옮겨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TV드라마로는 시도하기 힘든 10~15분 가량의 ‘숏폼 콘텐츠’에 대한 시청자 반응을 점쳐볼 수 있는 무대이기도 하다. MBC는 ‘연애미수’를 매회 25분물로 제작, 과감한 실험에 나선다. MBC 그룹콘텐츠전략팀 이대용 씨는 “젊은 시청자의 정서와 트렌드를 파악할 좋은 기회”라며 “방송사 입장에서는 독특한 정서를 가진 웹드라마를 새벽 등 후면 시간대에 편성해 다양한 가능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심은경 주연 ‘신문기자’ 내일 개봉

아베 비리 고발 日영화 국내 관객 마음 잡을까

후지이 감독 “외압 속 완성한 작품”

‘살아있는 권력’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일본영화가 17일 개봉한다. 일본 아베 정권의 비리와 권언유착을 고발하는 ‘신문기자’이다. 연기자 심은경이 비리를 고발하는 기자 역을 맡아 주목받는 가운데 최근 한일관계 이슈와도 맞물려 시선을 붙잡는다. 이를 연출한 후지이 미치히토 감독과 가와무라 미츠노부 프로듀서가 개봉에 앞서 한국을 찾았다.

두 사람은 15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CGV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이지 않는 외압 속에 완성한 작품”이라고 ‘신문기자’를 소개했다. 영화는 올해 6월 일본에서 개봉해 적은 상영관 등 한계 속에 14일 현재 46만 5000여 명을 모았다. 이들은 “TV나 라디오가 한 번도 영화를 다뤄주지 않았다”며 “홍보수단은 오직 일부 신문과 SNS뿐이었다”고 어려움을 토론했다.

‘신문기자’는 도쿄의 한 신문사 기자가 익명의 제보를 받아 권력의 총격적인 진실을 추적하는 내용이다. 실제 아베 총리가 연루된 사학스캔들이 모티프다. 정치권력을 비



영화 ‘신문기자’의 가와무라 미츠노부 프로듀서(왼쪽)와 후지이 미치히토 감독이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CGV압구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판하는 영화 제작에 대체로 소극적인 일본에서 나오기 어려운 정치영화로 꼽힌다.

무엇보다 영화 속 ‘가짜뉴스’와 민간인 사찰 등 소재는 우리 현실에 대입해도 될 만큼 닮았다. 가와무라 미츠노부 프로듀서는 “최근 3~4년간 일본에선 정권을 뒤엎을 정도로 큰 정치 사건들이 벌어졌지만 미해결로 남아 있다”며 “그 원인 중 하나는 미디어의 위축”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영화는 ‘신문’의 역할을 강조한다. 제작진은 “신문 구독자의 축소는 정치권을 향한 국민적 관심의 축소와 맞닿아 있

다”며 신문사의 가치와 역할을 되짚었다. 올해 33세인 후지이 미치히토 감독은 “인터넷으로 뉴스를 볼 뿐 신문을 제대로 읽은 적이 없어 연출 제안을 두 번이나 거절했지만, 나 같은 세대의 ‘눈’이 필요하다는 말을 결국 받아들였다”고 털어놨다.

이들은 심은경도 높이 평가했다. 감독은 “(외압으로)일본 배우 캐스팅이 어려워 심은경을 캐스팅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지적인 면모와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그에게 가장 먼저 출연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해리 기자 goff1024@donga.com



교육·퍼즐

에듀윌

‘지역사회 꿈’ 위한 사회공헌활동 적극

강주현의 퍼즐월드

WWW.경품광고퀴즈.kr WWW.매직스도쿠.kr

매일 100포대씩 ‘사랑의 쌀 나눔’...“어디든 찾아갑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다양한 사회복지단체와 복지시설에 기업과 개인이 보내온 기부금과 기부물품들이 모여든다. 또한 구세군 모금활동과 같은 소액 기부도 연말에 집중된다. 이렇듯 우리 사회에서 나눔 활동과 기부에 대한 관심도는 명절과 연말 등 어느 특정한 기간이 되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박명규)은 지난 2011년부터 매일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쌀 100포대를 우리 사회의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기부하는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에듀윌 사회공헌위원회는 현재까지 1회당 10kg의 쌀 100포대를 201회에 걸쳐 기부했다. 총 1만522포대이며 이를 한 끼 식사로 환산할 경우 52만6100인분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다.

에듀윌은 지역사회의 꿈을 실현한다는 경영이념을 토대로 사회공헌활동에 적극적이다. ‘사랑의 쌀 나눔’



활동 역시 지역 사회의 꿈과 희망을 위한 활동으로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사랑의 쌀 나눔’ 활동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손길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진행된다. 지난 9월에는 에듀윌 출신 공인중개사 동문회 회원들과 함께 대구에서 행사를 열어 회원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에듀윌 사회공헌위원회의 관계자는 “에듀윌은 지난 2011년부터 꾸준히 진행한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통해 1만 포대가 넘는 쌀을 기부했다”며 “앞으로 에듀윌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지 찾아가 사랑의 쌀을 나누고 봉사활동을 진행해 지역 사회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9까지의 숫자를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 스도쿠문제

	8		3		6			
3			8	5			7	
		7	4		3			
	5		1			7		
7	1	5		9	8		6	
	4			8		3		
		8	5		1			
1			2	8			3	
	2			7			9	

				6	2	7		
		9	1	8				
	5	4				2	1	
9				4				2
3	7		5		8		6	4
	5				3			8
		9	3				5	2
			7		5	4		
				9	7	3		

■ 스도쿠정답

8	9	1	2	7	6	5	3	4
5	2	8	6	2	7	9	1	
4	2	1	5	9	8	3	6	
1	5	9	8	2	6	7	4	
9	7	8	6	2	5	1	3	
2	3	6	7	1	8	9	5	
5	8	2	4	6	7	1	9	
7	1	4	5	9	8	2	6	
6	9	2	3	1	5	9	8	7
1	8	9	1	2	6	5	2	7
6	8	4	1	5	2	7	8	9
7	2	5	4	9	8	6	1	
8	6	7	2	3	1	9	4	
4	9	1	8	6	5	2	7	
2	5	8	9	4	7	8	1	
6	1	2	6	8	3	5	9	
3	4	8	5	1	7	6	9	
9	7	6	2	9	1	1	8	